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5.7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55.10원 (-7.70원)

KOSPI

7,384.56 (+447.57, +6.45%)

KOSDAQ

1,210.17(-3.57, -0.29%)

국고채 10년 금리

3.932(-)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유틸리티[하향]	산유국 싸움에 등 터진다 [유재선]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금리 메리트로 신용스프레드 안정세 전환 [김상만]
자산배분의 창(窓)	미국 1Q GDP: AI 중심으로 재편된 성장 구조 확인 [이영주]
월간 하나채권	[5월] 유가와 함께 금리 상승도 일단락 [박준우]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주(州)선거 압승의 의미 [김근아]

기업분석

카카오뱅크	실적은 예상 부합. 기대 요인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멘텀 [최정욱]
KCC	실리콘 판가 상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 [윤재성]
GS피앤엘	비수기에 증명한 구조적 성장 [이기훈]
파라다이스	바닥이 맞습니다 [이기훈]
에스엠	슴슴하다 [이기훈]
에프앤가이드	K-증권시장 Data Backbone [박찬솔]

글로벌리서치

AMD	인텔보다 AMD를 좋아하는 이유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LIG디펜스앤에어로, 삼양식품, DN오토모티브, LX인터내셔널, 리노공업, 심텍, 덕산테코피아, 세나테크놀로지

하나증권

2026년 5월 07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유틸리티

산유국 싸움에 등 터진다

Neutral(하향)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5월 6일

SGC에너지(005090)
BUY | TP 76,000원 | CP 56,300원

SK가스(018670)
BUY | TP 330,000원 | CP 262,000원

한국가스공사(036460)
BUY | TP 55,000원 | CP 37,850원

한국전력(015760)
Neutral(하향) | TP 45,000원 | CP 45,050원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

발전사업자의 매출은 한국전력의 구입비용이다. 지금처럼 발전원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천연가스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에너지 원자재다. 국내로 도입되는 LNG 가운데 유가 연동 계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유가 벤치마크도 일반적인 3대 유종 선물이 아닌 JCC(일본평균원유도입단가)로 볼 수 있다. 일본 관세청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 시점보다 3개월 늦게 반영되는 시차가 있다. 또한 현물 가격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현선물 스프레드가 플러스인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가격보다 JCC가 높게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유가 연동 LNG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전연료를 도입하는 발전소는 예상보다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대급부로 한국전력은 3분기부터 비용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과 다르게 아시아 LNG 가격이 유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SMP 상단이 제한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은 낮음

과거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바 있다. 오랜 고통의 기간 동안 전기요금은 원칙보다는 덜 올랐지만 과거 어느 시점보다 빠르게 상승했고 연간 100조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매출이 확대되었다. 이익 레버리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이지만 아쉽게도 최근의 원가 상승은 이익 가시성을 낮추는 중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과거 대비 이익 체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만약 적자로 전환되더라도 규모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 인상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부분이다. 적자로 자본이 녹아내려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던 과거 시점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우려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전채 발행 확대도 불가피하나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다.

Top Picks: SGC에너지, SK가스. 관심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제시

2026년 하반기 유틸리티 섹터 Top Picks로 SGC에너지와 SK가스를 제시한다. SGC에너지는 유가 상승과 발전연료(국내산 미이용 우드칩) 가격 하락의 조합으로 발전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 하반기 가시화될 데이터센터 사업도 장기 EPS 및 멀티플 재평가 요소다. SK가스는 LNG 가격 공식에 미국 천연가스 Mix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 우위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산 프로판의 공급 안정성도 눈여겨볼 요소다. 한국가스공사는 요금기저 상승에 따른 4분기 실적 성장 및 해외 자원개발사업 손상차손 환입 여력을 고려할 때 EPS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 유틸리티 공기업 배당성향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2025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통해 이미 충분히 낮춰졌다. 다만 EPS 성장에 따른 절대적인 DPS 규모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저평가 국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금리 메리트로 신용스프레드 안정세 전환

다만 아직 추세전환에 대한 확신은 힘든 상황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세는 멈추었다. 그에 따라 크레딧시장의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4월 초를 기점으로 초우량물인 은행/공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강세 흐름이 여타 섹터로까지 점차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용스프레드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향성 전환 여부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신용스프레드는 작년 말 이후의 오랜 약세 국면을 탈피하면서 강세 전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힌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해 말 이후의 시장금리 움직임 및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을 중동사태 이전까지와 그 이후로 구분하여 추적해보자. 시장금리(국고 3년 기준)는 작년 11월 초 이후 전쟁 직전까지 34.1bp 상승하였고 발발 이후 추가로 43bp 상승하였다. 즉, 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금리 변화가 그 이전에 비해 더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반면 신용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시장금리의 변화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용스프레드는 작년 11월 초 이후 전쟁 직전까지의 확대폭이 그간 변화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채의 경우 전쟁 직전까지 20.5bp 상승한 이후 추가로 5.2bp 확대되는데 그쳤다. 공사채의 경우에는 전쟁 발발 후 오히려 5.3bp가 하락하는 강세를 보였다. 즉, 중동사태에 따른 반응 양상이 국고채와 신용채권 간에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편의상 중동사태 이전의 금리(스프레드)변동 원인을 내부요인, 그 이후의 변동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자. 국채시장의 경우 외부요인을 더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크레딧시장의 경우 내부요인을 더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는 절대금리 증감 측면에서 보면 신용채권의 금리 또한 국채금리 못지않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즉, 신용채권 금리변동 = 국채금리 변동분 +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변동분이기 때문에 신용채권 절대금리는 국채금리 이상(회사채의 경우) 또는 국채금리 보다 약간 적게(공사채의 경우) 상승했다는 것이다.

약간 돌아온 느낌이 적지 않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부정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신용채권 금리가 작년 말 이후 많이 상승했다는 점이고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절대금리 메리트가 점차 부각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시장 내부적으로 상대적 금리 메리트 측면을 보더라도 은행권 수신금리(1Y) 대비 단기 은행채(1Y) 및 중기 공사채(3Y) 간의 금리갭은 22년 이후 최고치로 확대되어 있다.

한편, 장단기 금리차(국채 10Y-3Y)와 신용스프레드(회사채 AA-) 간의 간극은 다시 확대되면서 신용채권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절대/상대적인 금리 측면에서 신용스프레드가 강세 전환할 필요조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펀더멘털 측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상·하위 등급 간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5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미국 1Q GDP: AI 중심으로 재편된 성장 구조 확인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국 성장 구조

2026년 1분기 미국 GDP는 연율 기준 2.0% 성장을 기록하며 전분기 (0.5%) 대비 반등했다. 그러나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일부 산업에 의해 지탱되는 편중된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였다. 비주거 부문 고정투자는 전년 대비 +10.4%나 증가해 GDP 성장에 약 1.38%p 기여했으며, 데이터센터·서버·네트워크 장비 중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투자는 명목 기준 3,861억 달러로 전년대비 73%, 2022년 말 이후 149% 이상 증가했다. 특히 Microsoft, Alphabet, Meta Platforms, Amazon 등 주요 빅테크의 연간 CAPEX 역시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광범위한 산업 확장에 기반한다기보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중심의 투자 사이클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는 지금 "전체가 좋아지는 성장"이라기 보다 "특정 산업이 전체를 끌고 가는 성장"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와 실물경제는 점차 약해지는 흐름

반면, 경제 전반의 체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1분기 개인소비는 +1.6% 증가했지만, 소비 확대의 배경에는 소득 증가보다 세금 환급 증가 (+11% YoY)와 저축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개인 저축률은 3월 기준 3.6%까지 하락해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는 Headline 기준 3.5%(연율 4.5%)로 다시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재가속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즉, 현재 소비 여건은 소득 기반의 건강한 확장이 아닌 유동성 소진과 물가 압력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며 주택 시장은 구조적 둔화 상태에 머물고 있다. 1분기 주택투자는 전년 대비 -8% 감소하며 GDP를 약 -0.31%p 끌어내렸고, 실제 기존 주택 거래량은 1990년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고금리 부담이 특정 산업을 구조적으로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순수출 역시 -1.3%p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미국 경제는 AI 투자 중심의 확장과 소비·주택·대외 부문의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K자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성장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부담: 지속가능성의 문제

2025년 4분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026년 1분기에는 다시 정부지출 (소비와 투자)이 GDP 성장에 약 0.7%p 기여하며 성장률 반등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동시에 정부의 금융 비용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된다. 1

분기 정부 부채의 순이자 비용은 약 1,281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GDP 대비 약 4%)되었는데,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과거 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특히, 이러한 이자비용은 GDP 생산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재정적자에는 반영되어 정부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미 美 재정적자는 GDP 대비 5~6%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에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막대한 정부 재정에도 신규 성장 여력은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 시사점: 선택적 집중과 균형의 중요성

이번 1분기 GDP 성장 구성을 보면, 현재 미국 시장의 기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등은 실제 CAPEX 확대와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역시 이러한 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동시에 현재 경제는 매우 '좁은 성장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소비는 저축 감소에 의존하고 있고, 주택 시장은 금리 부담 속에 위축되어 있으며, 성장의 상당 부분은 AI 투자와 재정지출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산업과 자산으로 자금이 집중될수록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정책 민감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 시장은 AI 중심 성장에 올라타야 하는 시장이면서도, 동시에 쏠림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구조적 투자 사이클에 대한 선택적 집중은 유지하되, 동시에 금리·재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에너지·금과 같은 실물자산 및 방어적 크레딧을 함께 활용하는 균형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6년 5월 6일 | Global Macro Strategy

월간 하나채권

[5월] 유가와 함께 금리 상승도 일단락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5월 6일 기준. ●는 직전 전망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유가 안정으로 금리 상승도 주춤할 전망. 미국 국채 '중립'으로 상향, 한국은 '중립' 유지
- 미국: 10년 4.5%, 30년 5.0% 등 주요 저항선 근접. 금리 반등 이후 숨 고르는 국면
- 한국: 성장과 물가 전망의 동반 상승은 악재. 단, 23년 기준금리 레벨까지 반영된 상태

Monthly Viewpoint: 여전히 유가 영향권

유가 쇼크 이후 금리는 총 4단계에 걸쳐 움직인다. ① 유가 충격 직후 금리 급등, ② 유가와 함께 금리 변동성 확대, ③ 유가 반락에 따른 금리 하향 안정, ④ 성장률 전망이 금리 추세 하락 or 반등 방향성 결정 중 지금은 두 번째 단계다.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유가와 금리 안정이다. 미국 국채 투자의견을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한다.

1. 미국: 금리 반등 이후 숨 고르는 국면

1) 매크로: 수요 충격은 여전히 제한적

2) 통화정책: 인상과 인하 허들이 모두 높음

3) 채권시장: 금리 반등 이후 숨 고르기

2. 한국: 성장과 물가 전망이 동반 상승

1) 매크로: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서프라이즈

2) 통화정책: 5월 금통위에서 긴축 시그널. 다만 선제적 인상은 아닐 것

3) 채권시장: 매크로 환경은 최악이나…

3.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1) 국채 투자의견: 미국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한국 '중립' 유지. 2, 3분기 중 한미 모두 유가와 함께 금리 상승세가 일단락될 가능성을 반영

2) 금리 전망: 미국 연내 1회 인하, 한국 동결 이후 내년 초 인상 전망. 올해 6, 12월말 미국 10년 금리 4.5%, 4.4%, 한국 10년 금리 3.9%, 3.8% 전망

2026년 5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주(州)선거 압승의 의미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야당 텃밭이었던 서벵골에서 승리하며 모디 정부 영향력 확대됨

금주 인도 5개 주·연방 직할지(서벵골, 아삼, 타밀나두, 케랄라, 푸두체리)에서 열린 선거 개표 결과가 공개됐다. 202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연정 구조로 3기를 출범시킨 만큼, 각 주의회 선거 결과는 모디 정부의 영향력과 정책 추진 여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서의 의미가 커졌다. 이번 개표 결과는 모디 정부 3기가 중반부에 접어든 시점에 5개 지역에서 동시 발표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개표 결과 총 3개 지역에서 BJP 및 NDA(여당 연합)가 승리를 거두었다. 기존 집권 지역에서 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승리 지역 중 서벵골이 포함됐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서벵골은 2011년 이후 TMC가 장기 집권해온 대표적인 야당 우위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BJP가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한 것은 모디 정부가 추진해온 성장 중심 정책 기조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판단이며, 향후 정책 안정성과 추진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벵골 지역에서의 승리는 인프라 투자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평가된다. 정부는 현재 고성장 기조 지속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프라 개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서벵골은 동북부 인도의 핵심 거점이자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토지 수용과 주정부 협조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BJP가 주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과 집행 속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 선거 결과, 특히 서벵골에서의 승리는 모디 정부의 정치적 동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동시에,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연결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현재 인도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환율이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물가와 경상수지, 기업 마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달러 대비 루피 환율도 달러당 95루피를 돌파하며 약세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유가 지속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 우려와 루피화 약세는 복귀 시점을 늦추는 요인인 만큼, 고유가가 진정되기 전까지 인도 증시의 단기 반등 탄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인도 경제는 견조한 내수와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으며, 인프라 투자는 이러한 성장 경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었다. 지정학 리스크 완화 이후 인도 증시는 다시금 내수와 투자 중심의 성장 스토리를 반영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인프라 중심의 정책 집행 기대를 뒷받침하며 기존 성장 스토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6년 5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카카오뱅크 (323410)

실적은 예상 부합. 기대 요인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멘텀

BUY (유지)

목표주가(12M)	35,000원
현재주가(5.6)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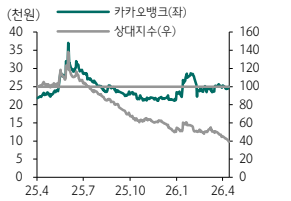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384.56
52주 최고/최저(원)	37,000/21,050
시가총액(십억원)	11,928.0
시가총액비중(%)	0.20
발행주식수(천주)	477,120.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5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3.4
외국인지분율(%)	16.38
주요주주 지분율(%)	
카카오	27.15
한국투자증권	27.1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727	829
순이익(십억원)	594	615
EPS(원)	1,246	1,289
BPS(원)	14,998	15,74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371	1,411	1,533	1,674
세전이익	589	640	777	760
지배순이익	440	480	575	562
EPS	923	1,007	1,206	1,178
(증감율)	24.0	9.1	19.8	-2.3
수정BPS	13,712	14,150	14,897	15,475
DPS	360	460	600	610
PER	22.8	21.5	21.1	21.6
PBR	1.5	1.5	1.7	1.6
ROE	7.0	7.2	8.3	7.8
ROA	0.8	0.7	0.7	0.7
배당수익률	1.7	2.1	2.4	2.4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일회성 제외한 경상 순익은 약 1,200억원 내외. 수익다각화 노력 긍정적이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순익은 YoY 36.3% 증가한 1,873억원을 시현해 우리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일회성 재분류 평가익 세전 933억원을 제외한 경상 순익은 약 1,200억원 내외로 추정한다. 1) 1분기 대출성장률은 1.7%를 기록했고 NIM은 6bp 상승했으며, 채권이자이익도 전분기보다 144억원 더 늘어나면서 순이자이익은 QoQ 4.8% 증가했다. 2) 수수료이익도 99억원으로 QoQ 107% 증가했는데 이는 광고수익과 대출비교수수료, 증권연계계좌수수료가 감소했음에도 체크카드수수료와 보금자리론 판매수수료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3) 자금운용자산 확대에도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금융자산수익이 크게 늘지는 않았고, 대출채권매각익도 감소하면서 기타영업이익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4) 판관비는 데이터센터 관련 감가상각비 증가와 AI 투자 등으로 YoY 11.4% 증가했다. 5) 연체율과 NPL비율 등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대손비용은 646억원으로 경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금자리론 확대 및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론칭으로 수익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관련 이익 개선 폭이 소폭에 그쳐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수신기반 확고해 운용자산 성장세 지속될 것. 이익 확대로 DPS 상승 폭도 커지는 중

1분기의 수신 순증액 1.1조원 대부분은 요구불예금 증가분으로 1분기 저원가성예금 비중은 57.8%로 약 0.7%p 상승했다. 모임통장 유저수 확대로 전체 수신에서 모임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까지 상승했다. 또한 신규고객수의 약 24%가 우리아이서비스 사용 고객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를 통한 확고한 수신기반은 지속되고 있다. Traffic이 늘고 수신 확대가 이어지는 한 대출 규제에도 총운용자산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이익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자금운용은 위험가중치가 낮아 RoRWA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높으며,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경우 투자금융자산수익이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는 배당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추정 DPS는 600원으로 DPS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데 현 주가 기준 기대배당수익률은 약 2.4%이다. 절대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멘텀 기대 가능. 비은행 확장은 대주주 불확실성 완전 해소 필요

본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전통은행 대비 multiple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화 또는 추가 상향을 위해서는 고성장 기대감 내지 신사업 모멘텀이 필요하다. 플랫폼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익 대부분이 전통은행 비즈니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그룹이 광범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대감은 크다. 스테이블코인은 많은 수의 컨소시엄 멤버 구성을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고 발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캐피탈 등 비은행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다만 M&A 위해서는 대주주 법적 불확실성 완전 해소가 필요하다

2026년 05월 0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KCC (002380)

실리콘 판가 상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

BUY (유지)

목표주가(12M)	730,000원(상향)
현재주가(5.06)	6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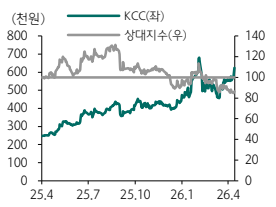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384.56
52주 최고/최저(원)	680,000/250,000
시가총액(십억원)	5,536.3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8,592.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8.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0
외국인지분율(%)	17.43
주요주주 지분율(%)	
정몽진 외 13 인	34.54
국민연금공단	9.8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757.7	7,023.3
영업이익(십억원)	450.8	497.0
순이익(십억원)	766.2	564.9
EPS(원)	88,186	65,745
BPS(원)	1,118,246	1,189,39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658.8	6,483.8	6,689.1	6,942.7
영업이익	471.1	427.6	407.3	488.5
세전이익	507.6	2,388.8	1,656.5	262.6
순이익	343.8	1,538.5	1,258.9	199.6
EPS	38,691	173,128	144,908	23,225
증감율	61.68	347.46	(16.30)	(83.97)
PER	6.09	2.43	4.30	26.82
PBR	0.38	0.46	0.58	0.57
EV/EBITDA	7.35	9.27	9.93	9.06
ROE	6.58	23.51	14.99	2.21
BPS	626,887	914,799	1,079,758	1,090,658
DPS	10,000	15,000	15,000	15,0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1Q26 영업이익 컨센 10% 하회. 실리콘 부진 영향

1Q26 영업이익은 881억원(QoQ +33%, YoY -15%)으로 컨센(975억원)을 10% 하회했다. 건자재/도료는 견조한 실적을 시현했으나, 실리콘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영향이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55억원(QoQ 흑전, YoY -73%)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을 추정한다. 다만, 일회성 비용 약 100억원 가량이 제거되고 원료인 실리콘메탈의 가격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폭은 더뎠다. 이란 전쟁에 따른 각종 촉매 가격 및 운송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가 전가에 시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도료 영업이익은 661억원(QoQ +58%, YoY +18%)을 추정한다. 전분기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었고, 자동차/조선을 중심으로 일부 판가 전가가 나타난 영향이다. 건자재 영업이익은 265억원(QoQ +2%, YoY +11%)을 추정한다. 전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 소멸에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중심으로 판가/물량이 축소된 영향으로 개선폭은 더뎠다.

2Q26 영업이익 QoQ +19% 증익 전망

2Q26 영업이익은 1,047억원(QoQ +19%, YoY -25%)으로 전분기 대비 증익을 추정한다. 실리콘은 전분기 대비 개선이 가능하나, 건재/도료는 원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230억원(QoQ +316%, YoY -44%)을 예상한다. Dow/신에츠 등 경쟁사를 중심으로 10~20% 가량의 판가 인상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KCC도 유사한 수준의 판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가가 높은 PA/FS 제품군(코팅/헬스케어/전자전기 등)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건자재/도료 합산 영업이익은 820억원(QoQ -106억원)으로 감익될 전망이다. PVC, 에폭시 등 주요 원료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창호/건축도료/컨슈머도료 등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판가 상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리콘 판가 상향과 보유지분 가치 상승

BUY를 유지하고, TP는 60만원에서 73만원으로 상향한다. 2026~27년 유의미한 실적 추정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삼성물산 지분가치 상향(5.2조원→6.4조원)과 자사주 1,174,300주(총 주식수의 13.2%) 소각 공시를 반영하였다. 제시한 TP는 2026년 기준 PBR 0.7배 수준이다. 실리콘의 Up-cycle 진입과 기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 및 주주에 우호적인 자사주 및 배당 정책 등을 감안하면 2021~22년 기록한 고점 수준의 Target Multiple PBR 0.77배는 충분히 부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실리콘 업황은 2025년을 바닥으로 2027년까지 Up-Cycle에 진입할 것이다. 1) 2025~26년 제한된 신증설 2)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의지 3) Dow 영국 베리 실록산(DMC) 공장 2026년 중반 폐쇄 등 영향이다. 실리콘 판가 상향과 보유지분 가치 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GS피앤엘 (499790)

비수기에 증명한 구조적 성장

BUY (유지)

목표주가(12M)	72,000원(상향)
현재주가(5.6)	5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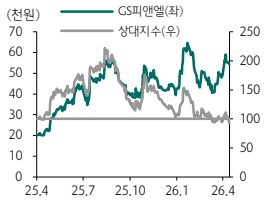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384.56
52주 최고/최저(원)	64,600/20,100
시가총액(십억원)	1,080.8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9,830.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4.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8
외국인지분율(%)	11.00
주요주주 지분율(%)	
GS 외 1 인	58.62
국민연금공단	6.0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17.3	667.4
영업이익(십억원)	116.8	142.7
순이익(십억원)	80.6	100.7
EPS(원)	2,687	3,377
BPS(원)	45,693	48,91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8.3	481.7	608.2	673.5
영업이익	(0.0)	78.0	122.8	143.2
세전이익	(1.3)	57.5	107.5	130.0
순이익	(0.9)	19.4	58.1	70.3
EPS	(49)	977	2,929	3,544
증감율	N/A	흑전	199.80	21.00
PER	(453.06)	42.99	18.85	15.58
PBR	0.53	0.97	1.21	1.14
EV/EBITDA	265.51	12.92	10.19	8.81
ROE	(0.11)	2.29	6.60	7.52
BPS	42,243	43,168	45,748	48,593
DPS	0	350	700	76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목표주가 상향

1분기 한국/일본의 중국 인바운드는 각각 143만명(+27%)/107만명(-55%)으로 이미 한일령의 수혜가 확인되었으며, 성수기로 진입하는 2분기 이후로는 더 좋을 것이다. 항공 노선 취소 우려가 있지만, 항공사들이 가파른 유류할증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중국과 같은 단거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2~3월 수준으로 낮춰 장거리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호텔 산업 전반적으로 한일령 수혜 및 구조적 수요 성장으로 ADR이 10% 내외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기에 진입하며 OCC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2027년 예상 P/E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7년 EPS를 상향하며 목표주가도 72,000원(+4%)으로 상향한다.

1Q Review: OP 242억원(+59% YoY)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304억원(+38% YoY)/242억원(+59%)으로 컨센서스(192억원)를 상회했다. 호텔 별 영업이익은 그랜드가 OCC 82.6%(+1.9%p), ADR은 30만원 중반(하이 싱글 성장)을 기록하며 92억원(+9%)으로 상승했다. 2층 연회장이 1~4월까지 리뉴얼 했으나 일식당이 미슐랭 1스타가 되는 등 식음 매출 고성장으로 상쇄했다. 웨스틴은 2억원으로 첫 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OCC는 73%, ADR은 30만원 초반을 기록했다. OCC 정상화 속도가 더뎌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춰 OCC를 채우고 있으며 월별로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다. 제주는 3/9일부터 서관이 리뉴얼을 하며 OCC가 64.6%(-8.6%p)으로 하락했으나 ADR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1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4분기에 동관 리뉴얼도 계획되어 있는데, ADR 인상 폭이 높아 방어가 예상된다. 나인트리는 43억원(+33%)으로 OCC는 83.3%(-1.4%p)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ADR 역시 두 자릿수 성장하며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

2분기 예상 OP는 205억원(+78% YoY)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504억원(+34% YoY)/205억원(+78%)을 전망한다. 2분기는 성수기에 더해 웨스틴의 첫 흑자 전환 및 그랜드의 2층 연회장 리뉴얼 마무리 등으로 호실적을 전망하나, 재산세라는 계절적 이슈가 반영된다. 작년 재산세는 128억원이었는데, 웨스틴의 리뉴얼 등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웨스틴의 점진적 회복을 감안하면 분기 4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2026년 5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파라다이스 (034230)

바닥이 맞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0원
현재주가(5.06)	15,42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384.56
52주 최고/최저(원)	23,650/12,360
시가총액(십억원)	1,428.3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92,629.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82.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0
외국인지분율(%)	6.22
주요주주 지분율(%)	
파라다이스글로벌 외 7 인	45.15
국민연금공단	11.6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80.4	1,410.5
영업이익(십억원)	196.3	242.4
순이익(십억원)	146.4	182.7
EPS(원)	1,047	1,358
BPS(원)	20,690	22,00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72.1	1,149.9	1,234.6	1,390.9
영업이익	136.1	155.8	194.7	260.6
세전이익	100.8	135.3	175.7	241.8
순이익	75.6	94.4	98.9	133.6
EPS	823	1,026	1,068	1,443
증감율	20.50	24.67	4.09	35.11
PER	11.66	16.13	14.44	10.69
PBR	0.53	0.88	0.78	0.73
EV/EBITDA	8.21	10.37	10.18	8.41
ROE	4.97	5.62	5.60	7.16
BPS	18,092	18,895	19,746	21,032
DPS	150	150	170	18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이제부터 시작인데 2027년 예상 P/E 11배

막 인수한 하얏트 리젠시의 적자(약 50억원)와 인건비 및 광고선전비 증가 등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다만, 4월 호실적에 더해 5월부터 리젠시 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일령의 수혜로 보다 빠른 램프업을 기대하고 있다. 월별 드랍액 7,000억원, 혹은 상징적인 월별 매출액 1,000억원에 근접한다면 2~3년에 걸친 램프업을 감안할 때 2027년 예상 P/E 18~20배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현 주가 대비 최소 50%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 주가에서는 적극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1Q Review: OP 373억원(-35% YoY)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940억원(+4% YoY)/373억원(-35%)로 컨센서스(448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드랍액은 1.8조원(+4%)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일본/기타 VIP/Mass가 각각 -18%/+1%/+15%/+17%로 변동했으며, 홀드율은 3월 7.5%의 역대급 부진으로 12.2%(-0.4%p)을 기록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성으로 4분기에 이어 인센티브 등이 추가 50억원 반영되었으며, 광고선전비가 35억원 증가했다. 콤프도 약 45억원 증가했는데, 워커힐로 추정되며 이는 호텔 산업 전반의 호황에 따른 숙박비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호텔 부산도 1분기 역대 최대인 OCC 75.6%(ADR 30.3만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27억원(+164%)을 기록했다. 1분기 인수한 하얏트 리젠시의 경우 손실은 약 50억원(매출 60억원, 비용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부터 호실적 발표. 하얏트 리젠시향 성장은 빠르면 5월부터 확인 기대

4월 드랍액은 6,521억원(+7%), 홀드율은 12.6%(+2.2%p)으로 매출액은 879억원(+31%)을 기록했다. 상당히 아쉬웠던 3월을 제외하면 올해 4달 중 3달이 850억원을 상회한 것이며, 2024~2025년까지 이를 상회한 적은 없다. 여기에 하얏트 리젠시 효과도 더해질 텐데 씨티에서 호텔 캐파 이슈로 Mass까지 콤프를 제공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하다. 빠르면 5월, 늦어도 3분기에는 월별 드랍액 7,000억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얏트 리젠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500실 중 일평균 콤프 30% 내외로 프리미엄 Mass(드랍액 약 1,500~2,000만원 추정)에게 제공된다면 분기 200억원, 연간 8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2026년 5월 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에스엠 (041510)

슴슴하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5.06)	92,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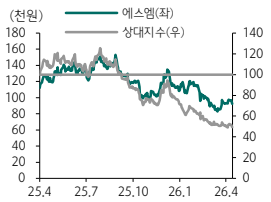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210.17
52주 최고/최저(원)	153,000/83,000
시가총액(십억원)	2,110.9
시가총액비중(%)	0.31
발행주식수(천주)	22,894.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2
외국인지분율(%)	30.55
주요주주 지분율(%)	
카카오 외 8 인	41.67
Tencent Music Entertainment Hong Kong Limited	9.6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79.3	1,381.3
영업이익(십억원)	203.0	229.2
순이익(십억원)	144.2	171.4
EPS(원)	5,968	7,075
BPS(원)	47,220	52,58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989.7	1,174.9	1,289.2	1,358.8
영업이익	87.3	183.0	203.3	222.0
세전이익	26.1	367.7	211.7	231.5
순이익	18.3	347.2	143.3	156.7
EPS	778	15,126	6,258	6,843
증감율	(78.77)	1,844.22	(58.63)	9.35
PER	97.17	8.93	14.73	13.47
PBR	2.51	3.08	1.90	1.71
EV/EBITDA	10.44	11.72	7.10	6.33
ROE	2.64	41.65	13.55	13.36
BPS	30,150	43,793	48,606	53,857
DPS	400	1,620	1,782	1,96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예상 P/E 15배

2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2분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하이브의 과도한 하락과 본업에서 특별한 흥행 변수 부재로 역사적 저평가 수준인 2026년 예상 P/E 15배에서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에스파/하츠투하츠 등의 북미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권 투어가 NCT/라이즈 등 남자 그룹으로 확대되는지 혹은 신인 남자 그룹 SMTR의 데뷔 성과에 따라 기간 조정이 마무리 될 것이다.

1Q Review: OP 386억원(+19% YoY)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791억원(+21% YoY)/386억원(+19%)으로 컨센서스(364억원)에 부합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388억원(-6%)으로 앨범은 EXO 컴백(101만장) 및 제노X재민(NCT) 유닛(52만장), 콘서트는 약 100만명으로 NCT드림 아시아(약 35만명), 라이즈 일본 돔 포함 약 26만명, 그리고 슈퍼주니어 아시아(약 19만명) 등이 반영되었다. MD/라이선싱도 474억원(+20%)으로 좋았는데, EXO/NCT Wish의 팝업 이벤트 호조와 하츠투하츠의 응원봉 신규 추가가 긍정적이었다. 자회사에서는 디어유 97억원과 일본/드림메이커 등이 각각 24억원(흑전)/17억원(+31%)으로 긍정적이었으나 C&C(-22억원), 키이스트(-10억원) 등이 부진했으며 기타에서 콘텐츠 자회사의 1회성 손실이 꽤 반영되면서 자회사 합산으로는 소폭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는 태용/NCT wish/에스파/라이즈/하츠투하츠 등이 컴백하고 EXO 아시아 및 동방신기 스타디움(2회) 등 콘서트 약 70만명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인 607억원(+27%)을 예상한다.

미국에서의 확장성을 보여줘야 디레이팅 마무리 될 것

EXO의 컴백과 태용의 제대, 그리고 NCT wish의 가파른 성장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2,000억원 내외를 기록할 것이다. 다만, 유일하게 연간 100만명 내외의 대형 투어를 도는 아티스트가 없는 상황으로 서구권 팬덤의 부재가 지속된 디레이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츠투하츠가 최근 컴백 스트리밍에서 스포티파이 기준 북미 비중이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에스파 역시 가장 많은 북미/유럽/중남미 투어를 예고한 상황으로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다.

2026년 05월 0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에프앤가이드 (064850)

K-증권시장 Data Backbone

Not Rated

현재주가(5.6) **32,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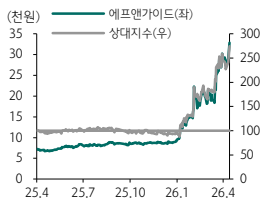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210.17
52주 최고/최저(원)	32,900/6,720
시가총액(십억원)	375.4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1,410.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13.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5
외국인지분율(%)	10.26
주요주주 지분율(%)	
화천기공 외 11 인	47.90
김군호 외 2 인	9.9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0	59
영업이익(십억원)	20	25
순이익(십억원)	20	26
EPS(원)	1,700	2,244
BPS(원)	7,546	9,52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6	28	30	32
영업이익	5	6	6	8
세전이익	6	9	9	4
순이익	5	8	8	4
EPS	453	658	642	349
증감율	3.9	45.3	(2.4)	(45.6)
PER	22.6	9.7	10.3	22.4
PBR	2.3	1.3	1.2	1.4
EV/EBITDA	21.6	11.5	11.7	10.2
ROE	10.8	14.2	13.2	6.6
BPS	4,434	4,942	5,362	5,400
DPS	130	180	180	22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금융 데이터 제공 사업자

국내 자본시장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정보/인덱스/펀드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금융정보 사업은 국내외 전문 금융연구기관이 고객이며, 금융시장 관련 리포트 플랫폼(FnGuide.com, WiseReport),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Data Feed, 분석 서비스(QuantiWise/Dataguide)를 제공한다. 인덱스 사업은 자산운용사/증권사/연기금 등이 고객이며, 지수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덱스 개발 및 실시간 피드를 제공한다. 펀드 평가 사업은 크게 펀드 평가, 기관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펀드 평가는 공모펀드 등급 분류, 운용사 등급 평가, 펀드 데이터 평가를 의미한다. 기관 컨설팅은 연기금 성과평가, 운용사 자산배분 컨설팅, 기금 위탁 자금 성과평가 사업이다.

25년 연간 실적은 354억원(YoY, +12.0%), 영업이익 107억원(YoY, +39.4%)을 기록했다. 매출액 비중은 금융정보 서비스 57.0%, 인덱스 30.4%, 펀드 평가 5.3%, 기타 7.3%이다. 인덱스 사업부문 매출액이 24년 대비 30억원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26년 매출액은 550억원(YoY, +55.4%), 영업이익 270억원(YoY, +144.9%)을 전망한다.

인덱스 사업: ETF 테마는 에프앤가이드

인덱스 사업의 경우 에프앤가이드를 기초 지수로 두는 ETF의 AUM에 비례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국내 상장 ETF 약 15%가 기초 지수로 에프앤가이드를 선택했다. 거래소(KRX) 다음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다. 특히 테마형 ETF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평균 20개 신규 ETF 런칭으로 확보 AUM을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Tiger 반도체 TOP10 등 반도체 + 삼성그룹 ETF AUM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어떤 테마가 부상하던지 빠르게 해당 테마형 ETF를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TF 개발사와 협력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국내의 펀드 시장 내 ETF의 비중이 KODEX(삼성자산운용)/TIGER(미래에셋자산운용)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ETF 래퍼로 거래 편의성까지 높아진 액티브 시장의 경우 성장 초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AI로 인한 기업 성장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길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테마형 ETF의 성장도 지속된다는 생각이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국내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Peer가 부재하지만, 해외의 경우 MSCI/S&P Global/CBOE Global Markets/Morningstar 등의 유사 기업이 있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50%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높아지면 글로벌 Peer 멀티플을 부여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5월 06일 | Global Equity

AMD(AMD.US)

인텔보다 AMD를 좋아하는 이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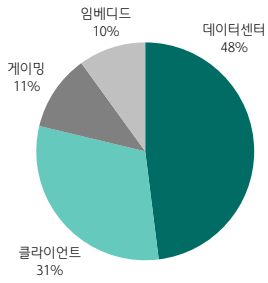
TP(컨센서스)	380.93 USD
CP(05.05)	355.26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Information Technology
주요 영업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홈페이지	www.amd.com
시가총액(십억USD)	579.2
시가총액(조원)	842.6
52주최고/최저(USD)	362.79/96.88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72
Blackrock Inc	9.0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5)	8.2	64.5
상대	(14.1)	3.3	31.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5,785	34,639	47,880	70,749
영업이익	6,138	7,768	12,986	22,037
순이익	5,420	6,831	8,110	15,944
EPS(USD)	3.31	4.17	6.92	11.68
EPS(YOY, %)	24.9	26.0	65.9	68.8
ROE(%)	2.9	7.2	13.5	19.7
PER(배)	105.9	85.7	51.4	30.4
PBR(배)	3.5	5.6	8.3	7.3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누가 서버 CPU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을까?

AMD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시장참여자들의 서버 CPU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에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 GPU에 대한 강한 수요가 CPU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인텔은 실적 발표에서 공급제약을 가격 인상으로 만회했다고 발표했으나, AMD는 가격 효과보단 판매량 증가가 강했다고 언급했다. CEO는 중장기적으로 서버 CPU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인텔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AMD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D와 인텔의 가장 큰 차이는 GPU다. 인텔도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AI용 가속기가 CPU 시장 점유율 방어나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AMD는 MI450, Helios, EPYC Venice 를 결합한 플랫폼 전략을 통해 GPU 수요를 CPU까지 연결하고 있다. 인텔도 수요는 강하지만 서버 CPU 시장 점유율 방어 또는 확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AMD를 더 선호한다. 과거 PC 시장에서 AMD가 인텔 점유율을 잠식하며 주가 재평가를 받았던 흐름이 서버 CPU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1Q26 실적

AMD의 FY 1Q26 실적은 매출액 103억 달러(YoY +37.8%, QoQ -0.2%), 매출총이익 57억 달러(YoY +42.4%, QoQ -2.9%), 영업이익 25억 달러(YoY +42.8%, QoQ -11%), EPS 1.37 달러(YoY +42.5%, QoQ -10.1%)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3.6%, 4.2%, 6%, 6.4% 상회했다. 매출 비중이 높아진 데이터센터 사업부가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39억 달러(YoY +34.5%, QoQ +3%)다. 연구개발비는 24억 달러(YoY +38.7%, QoQ +2.9%), 일반 판매관리비는 13억 달러(YoY +41.4%, QoQ +4.6%) 등이다. AI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연구 개발비가 늘고 있다.

시장 전망보다 양호한 FY 2Q26 가이던스

AMD의 FY 2Q26 가이던스는 매출액 112억 달러(YoY +45.7%, QoQ +9.2%), 매출총이익 63 억 달러(YoY +88.6%, QoQ +10.3%), 영업이익 30억 달러(YoY +231.3%, QoQ +17%), EPS 1.59 달러(YoY +231.1%, QoQ +15.8%) 등을 제시했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6.2%, 7.6%, 11%, 9.6% 상회했다. 모든 사업부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센터는 강한 성장을 언급했는데 CEO는 2분기에 서버 CPU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5/4	220,500	266,000	20.6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5/4	160,500	158,900	-1.00%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LIG디펜스앤에어로 (079550.KS)	5/4	941,000	979,000	4.04%	• 대규모의 수주잔고와 중동 수출 물량 매출인식 본격화로 2028년까지 실적 우상향 기대 • 중동의 방공망 보강 수요와 UAE 방산협력 강화에 따른 천궁-II 추가 수출 기대감
삼양식품 (003230.KS)	5/4	1,341,000	1,294,000	-3.50%	• 밀양 2공장 가동 효과 본격화, 매출 성장 가시성 부각 • 수요 증가, 수출 호조로 견조한 실적 기대감 존재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49,500	3.02%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LX인터내셔널 (001120.KS)	5/4	53,400	49,850	-6.65%	• 석탄 가격 강세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트레이딩 마진 확대 기대 • 자원·트레이딩/신성장 부문의 가파른 회복이 예상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리노공업 (058470.KQ)	5/4	119,300	116,700	-2.18%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심텍 (222800.KQ)	5/4	87,000	93,800	7.82%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덕산테코피아 (317330.KQ)	5/4	24,000	26,600	10.83%	•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기대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북미 전해액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세나테크놀로지 (061090.KQ)	5/4	42,550	40,650	-4.47%	• 모터사이클 중심 매출 구조에서 사이클·아웃도어·산업현장·로봇 분야로 적용처 확대 • 2025년 말 현금성자산 887억원, 부채비율 16.7% 수준의 안정적 재무구조 보유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75%	-8.82%p	+78.05%	+17.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49,500	3.02%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1,389,000	11.30%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37,500	26.17%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8,730	13.38%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601,000	55.89%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6,400	4.90%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66,000	59.0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27,000	38.34%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8,900	11.98%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506,000	52.18%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76,600	7.23%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84,500	18.03%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632,000	115.33%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9.07%	-10.11%p	+52.48%	-8.3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7,280	26.1%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5,410	1.6%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3,205	30.9%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150	39.6%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22.69	54.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1.67	7.7%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9.45	30.2%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75	19.9%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	5.4	5.5	5.6	5.7	5.8	5.9
	▪대한민국 4월 PMI 제조업 (53.6, 이전치 52.6)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52.2, 이전치 52.2)	▪미국 4월 PMI 서비스업 (51.0, 이전치 51.3) ▪미국 4월 ISM 서비스 지수 (53.6, 이전치 54) ▪미국 4월 ISM 서비스 고용 (48, 이전치 45.2) ▪미국 3월 JOLTs Job Openings Rate (4.1%, 이전치 4.2%) ▪미국 3월 JOLTs Layoffs Rate (1.2%, 이전치 1.1%)	▪대한민국 4월 CPI (2.2%, 이전치 2.2%) ▪중국 4월 레이팅독 종합 PMI (53.1, 이전치 51.5%) ▪중국 4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52.6, 이전치 52.1%) ▪유로존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48.6%) ▪유로존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7.4%) ▪유로존 3월 PPI(전년) (E --, 이전치 -3.0%)	▪일본 3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국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일본 4월 PMI 종합 (E --, 이전치 52.40%) ▪일본 4월 PMI 서비스 (E --, 이전치 51.2%) ▪독일 3월 무역수지 SA (E --, 이전치 19.8b) ▪미국 4월 실업률 (E 4.4%, 이전치 4.3%)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E --, 이전치 49.8)	
5.10	5.11	5.12	5.13	5.14	5.15	5.16
	▪중국 4월 PPI (E --, 이전치 0.5%) ▪중국 4월 CPI (E --, 이전치 1.0%)	▪유로존 ZEW 서베이 예상 (E --, 이전치 -20.4) ▪미국 4월 CPI (E --, 이전치 3.3%)	▪대한민국 4월 실업률 SA (E --, 이전치 2.7%) ▪유로권 1분기 GDP SA (E --, 이전치 0.1%)	▪미국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일본 4월 PPI (E --, 이전치 2.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